

카톨릭 역사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Digital Archives for Catholic Historical Records and Archives

한 아 랑(Ah Rang Han)** · 오 효 정 (Hyo-Jung Oh)***
안 승 권(Seung-Kwon An)**** · 김 용 (Yong Kim)*****

〈 목 차 〉

I. 서론	IV. 호남교회사 연구소 아카이브 구축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소장 기록물의 의의 및 가치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관리 현황 및 문제점
3. 선행 연구	3. 소장 기록물의 유형 및 특성
II. 이론적 배경	4. AtoM 적용 구현
1. 교회사 기록관리	V. 서비스 제공 방안
2. AtoM-오픈소스 소프트웨어	VI. 기대효과 및 결론
III. 지역 아카이브 구축 사례	

초 록

본 연구는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적 특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장 기록물의 수집, 관리, 보존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아카이브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문화콘텐츠의 아카이빙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정책과 맞물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 관리의 문제점 및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지역적 한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지역문화콘텐츠, 종교·역사기록물, 공개소프트웨어, AtoM, 지역화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digital archives for honam catholic history institute .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considers historical archives of honam catholic history institute. Also, this study proposed an effective archiving method based on OSS(open source software) for contents collection, management, preservation and service. Archiving of local cultural contents can contribute to the local development along with cultural industry policy. This study performed interview with people in charge of management of archives to extract general requirements for implementation of local archives. With the results, this study limitations of current archives management and considerations of implementation of local archives.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effectively solve the limitations through the processes.

Keywords: Local cultural contents, Historical archives, Open source software, AtoM, Locality

* 이 논문은 2016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 국제학술발표회에 발표된 논문을 확장, 보완하였음.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NRF-2016MSD7A1912703).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showahrang@jbnu.ac.kr) (제1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조교수, 문화융복합 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ohj@jbnu.ac.kr) (공동저자)

**** ㈜바른교육 (ceo@trueedu.co.kr)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장(yk9118@jb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6년 11월 19일 •최초심사: 2016년 11월 28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19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359-384,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12.359]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70여년의 기간동안 빠른 속도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에 성공하였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교통의 발달,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방중소도시 지역의 쇠퇴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가 생산 및 저장되고 유통되며, 이를 토대로 문화적인 산업물들이 생산되는 정보 산업화 시대이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와 지방화는 쇠퇴한 지역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고유한 특색과 매력이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유의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역 고유 문화의 장점과 특성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은 확실하다. 그러한 지역의 문화가 기록되고 그 기록들이 하나의 지역 대표 콘텐츠로 자리잡을 때 그 지역은 지역만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사례를 흔히 살펴볼 수 있다. 지역의 아카이빙 범위는 그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소, 종교, 정치, 생활 등 지역 아카이빙은 그 범위에 제한은 없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관광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종교 역사 기록 및 유적의 기록화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 천주교 성지를 보유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경우 천주교 성지 재조명 사업을 통해 지역의 주요 천주교 성지들을 복원하고 보완하여 하나의 성지 순례 코스를 만들어 지자체의 관광 정책 사업 중 하나로 적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김대건 신부 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천주교 성지 관광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종교 역사 기록이 지역의 문화콘텐츠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다량의 한국 천주교 역사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천주교 전주교구 산하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소장기록물이 지니는 가치 및 그 유형과 특성을 알아보고 국내·외 지역 아카이브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기록물 일부를 활용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시연해보고 직접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결과물은 예산과 인력 부족을 겪는 교회사 기록관리 시스템의 확립 및 지역문화 콘텐츠 중 종교 역사 기록물을 활용한 아카이브의 구축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발전 노력과 맞물려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지역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어떠한 노력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지역의 종교역사문화유산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다양한 지역아카이브 사례 중 지역문화 콘텐츠 활용을 통한 지역아카이브 성공 사례 연구 및 호남교회사 연구소 역사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설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내용적 범위로서 ①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배경 분석 ② 사례 조사 및 현황 분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설계 ③ 지역 발전과 지역 아카이브 구축의 상관 관계 분석 및 지자체의 역할, 앞으로의 구축 방향 제시로 이루어졌다.

연구 방법으로써, 선행연구 검토는 관련 연구와 문헌을 중심으로 시행하였으며, 현황 조사 및 사례 분석은 호남교회사연구소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록물 조사 및 웹페이지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사례 조사 및 현황 분석, 지역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설계는 호남교회사연구소장 및 각 성지 담당 신부 인터뷰 및 문헌 조사, 기록물 수집 및 시스템 구현을 병행하였다. 지역발전과 지역아카이브 구축의 상관관계, 지자체의 역할 및 구축 방안 등은 인터뷰 및 문헌 조사,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하여 기록물 관리 담당자,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거쳐 수행하였다.

3.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먼저 종교 기록물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AtoM을 활용한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지역아카이브 구축 및 로컬리티 기록화에 관한 연구순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종교 기록물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연구로곽정(2005)은 조계종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에 개발되어 가동되고 있는 조계종 기록관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발과정에서 분석되거나 산출된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직의 특성·생산기록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기록관리 시스템 모델링 작업을 통해 실제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소규모 기록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을 관리 시스템 안으로 수용하여 일관성있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송현강(2006)은 대전·충남 지역의 근현대 기독교 기록물 현황과 기록관리 실태 연구를 통해 대전·충남 지역의 기독교 상황 및 기록물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선교 기록물, 지역교회 회의기록물, 개교회 기록물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전·충남 지역 교회의 기록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공문서 규정 및 기록물의 생산과 종류 등에 관해 각 교파별 관리 강화를 제안하였다. 김선미(2003)는 인천교구 기록관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교회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에서 교회 기록물 관리의 역사, 가톨릭 교회 기록 관리 체제를 언급하였고, 가톨릭 교회에서 기록물 관리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인천교구의 기록관리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교구 기록관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장윤금(2013)은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 연구에서 단순한 종교적 가치를 넘어 우리나라 근대 역사, 정치, 경제,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인 선교사 자료 기록물의 중요성을 설파하였고, 현재 이러한 선교사 자료들이 선교회, 신학대학, 정부기관, 도서관, 박물관,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 산재되어 있어 관리상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향후 체계화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AtoM을 활용한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로 육혜인, 김용, 장준갑(2015)은 민간 영역의 중요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기록사랑마을’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도구로서 웹 기반 기록관리용 공개 소프트웨어인 AtoM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안대진, 김익한(2015)은 국내 기록관리 분야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관심과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AtoM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심갑용 외(2015)는 전통문화, 문화예술을 포괄하는 한류문화콘텐츠의 중요한 증거적 가치를 기록물으로써 보존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한류문화콘텐츠들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AtoM 기반의 기록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보람 외(2014)는 국내 민간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전문 인력과 예산의 부족 등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공개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의미와 동향을 소개하였고 그 중 AtoM에 초점을 맞추어 그 기능과 효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역아카이브 및 로컬리티 기록화에 관한 연구로 권순명, 이승휘(2009)는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 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 기록의 유형과 범위를 특정하고 지역아카이빙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기록 수집 절차를 설계하였으며, 지역 아카이빙을 지속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기록 생산전략 도입 및 지역 아카이빙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였다. 손동유와 이경준(2013)은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의 개념 및 특징을 분석하여 마을 공동체의 정체성을 반영한 아카이브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의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제시하였다. 여진원과 장우권(2013)은 도시아카이브의 개념과 특성, 필요성을 분석하고 도시 아카이브 현황 및 분석을 통해 도시 아카이브 구축 방향을 제안하였다. 장윤이(2014)는

인천 근현대 역사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법 연구에서 박물관, 도서관의 설립 목적에만 부합되게 이용되고 있는 인천시 근현대 역사기록물을 일반인이 더욱 쉽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천 지역의 문화기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제시하였고 구축을 위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방법론적으로 논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교회사 기록관리

가톨릭 교회는 한국 가톨릭 교회, 교구, 본당의 유기적인 연계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교회는 교회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회법 및 많은 개별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의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교회 기록 관리와 가톨릭 교회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① 교회법

교회법은 전세계 모든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 교회의 최고 권위인 교황과 보편 공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교회법에서는 “교구장 주교 또는 교구장 주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이(381조)는 자기 지역 내에 존재하는 주교좌 성당, 의전 사제단 성당, 본당 사목구 성당들 및 기타 성당들의 문서고의 기록 문서들이 엄중히 보관(491조 1항)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관심을 기울이고, 교구청마다 사무처장을 선임하여 교구청의 기록 문서들을 수집·정리하고 교구청 문서고에 보관(482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교회법은 또한 본당 사목구의 문서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본당 문서고는 주임 신부의 관리하에 “본당 사무국의 각종 대장들과 유용성에 의해 기타 보존되어야 할 문서들을 보관해야한다”(491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한국 가톨릭 교회의 개별법으로써 한국 가톨릭 교회는 교회 법전의 규정과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규정에 따라 한국 교회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기록관 운영 지침을 개발할 수 있다. 교구 및 본당 문서고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 필요에 의한 단순한 규정뿐만 아니라 기록 관리학적 차원에서 유기적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내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기록 관리가 아닌 행정 문서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체계적인 기록 관리 수행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김선미 2003).

실제로 한국 천주교회는 각 교구별 문서 규정이 존재하며, 기록물 관리 업무 흐름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다. 교구별 본당 및 산하 기관에서 문서가 생산된 후 편철 및 기록대장에 관리

가 이루어지며 문서의 유형 및 종류에 따라 보존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된 문서는 폐기 및 이관의 과정을 거친다. 이관 문서는 교구문서고(사무처)로 이관되며 영구보존 문서는 문서고에 보존 및 활용의 단계를 밟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록물 관리의 흐름을 따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교구 공문서 규정의 개정을 통한 부서 및 기관의 행정의 통일성과 신속성을 기해야 하고, 단순한 문서관리가 아닌 기록 관리적 개념을 도입하여 교구의 생산 문서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닌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 기록물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문서고의 보존 환경 및 기록물 관리 조직의 확대·정비, 기록물 공개·활용에 관한 지침 마련 등 폐쇄적 기록 관리 환경을 벗어나 천주교 신도 및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기록물은 현재 전주 교구의 관리대상 기록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교구의 예산 및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관 자체적인 기록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웹기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AtoM을 통해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2. AtoM-오픈소스 소프트웨어

AtoM은 ICA의 PCOM 프로젝트와 Artefactual이 협력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한 공개 소프트웨어이다. 2008년 베타 버전을 개발한 후 지속적인 릴리스를 거쳐 2010년 11월에 정식 버전을 완성하였으며, 현재 2.3.0버전이 배포되었다.

AtoM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번역 기능을 제공한다. 한국어 번역 작업은 2014년 시작되어 그 해에 완료되었으며, 2015년 배포된 2.2.0버전부터 한국어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AtoM은 무료로 배포되는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점인데, 이는 시스템 구축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 및 다양한 주체의 기록관에서도 AtoM을 통해 무료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사용자 및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록물 관리 기능에 있어 AtoM은 등록·분류·기술·기록물 목록 관리 등의 기술을 지원하는데, 각각의 기능들은 ICA에서 제정한 국제 표준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다계층·유형 및 멀티미디어를 입력하고 활용할 수 있다. 등록된 기록은 컬렉션 단위부터 아이템 단위까지 폭넓은 계층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있어서도 기록관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관리자와 민간 및 특정 분야의 기록관에서도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남교회사 연구소 기록 관리 시스템 확립을 위한 도구로써 디지털 아카이브를 제시하고 있으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AtoM을 사용하였다. AtoM을 활용한 아카이브 구축은 유네스코 아카이브, 명지대학교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등 국내외 여러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다음 장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아카이브 구축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그 목적과 수행주체, 대상, 시사점을 찾아보고 호남교회사 연구소 아카이브 구축의 기대 효과를 가늠해 보았다.

Ⅲ. 지역아카이브 구축 사례

총 5가지의 국내·외 사례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종교·생활·예술·유적 등의 아카이빙이 지역의 소중한 기록을 보존하고 쇠퇴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표 1〉 지역 아카이빙 사례

구분	대상	목적	수행주체	시사점
함백역사 복원사업	강원도 함백역	근·현대사 문화자원의 보존	함백역복원추진위원회	국내역사 첫재건립 주민들 자발적참여
전남무형문화재영상 기록화	청자장, 소동패 놀이	무형문화재 보급 및 홍보, 계승	전라남도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대구문화예술 아카이브	대구지역문화예술	문화예술 창작벨트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예술창조공간조성
일본지바현 데이터마시	마을 및 전쟁유적	지역유적활용-지역정체성구현	지자체/지역민	전쟁도시에서 평화도시로의 지역정체성 확립
프랑스 루베시 라 빼신 미술관	루베시 수영장	지역민의 기억 및 유산 보존	지자체/지역민	지역문화공간구성 지역민기억공유

〈표 1〉은 5가지 국내·외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서 각 사례의 대상, 목적, 수행주체,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검토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뒷받침되어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낸 함백역사 복원 사업(함백역 복원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hambaek-station>),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성 확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남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2016)과 대구 문화예술 아카이브(대구예술발전소 <http://www.daeguartfactor.y.kr>) 등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에서 지자체의 아카이빙 사업으로 이어지는 바람직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지바현의 데이터마 사례(송정숙 2015) 및 프랑스 루베시

라 빠신 미술관(류지석 2013) 등의 해외 사례 역시 각 수행 주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큰 몫을 하였다.

둘째,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의 아카이빙으로서 이는 지역의 문화콘텐츠 개발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은 지역만의 특색과 창의성을 보여줌으로써 문화 콘텐츠로서의 요구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자체는 이를 지역문화콘텐츠로서 개발하여 지역 경제 발전 및 문화 관광산업의 부흥에 일조하고, 지역민은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 역사에 대한 기억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실제 호남교회사 연구소 아카이브 구축 시연을 통해 교회사 기록물의 기록관리 시스템 확립 및 지역문화콘텐츠로서 활용 가능성, 지역민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교회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서비스 및 향후 연구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IV. 호남교회사 연구소 아카이브 구축

1. 소장 기록물의 의의 및 가치

한국 천주교 전주교구 지역은 한국 천주교회 초기부터 천주교 신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때 문에 박해 때마다 여러 곳에서 순교자들이 신앙을 증거했고, 순교자들과 옛 천주교 신자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가 많은 곳에 흩어져 있다. 호남 지역의 순교자들은 초기 한국 천주교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신해박해, 신유박해 등 여러 박해와 순교의 시작이 바로 호남지역에서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전주 교구는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전라도 지역 천주교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호남교회사 연구소이다.

호남교회사 연구소는 1983년 5월 14일에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1973년부터 천주교사 수집과 연구 활동을 하며 교회사 사료 발굴과 정리에 힘쓴 김진소 신부에 의해 시작된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지방 교회사 특히 전라도 지방의 교회사 정리와 토착화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목적 하에 교회사 자료 보존과 교구사 간행 및 연구 활동, 의식 교육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이영춘 신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호남교회사 연구소 개요, 소장 기록물 현황, 소개가 가능한 가치있는 기록물, 전체 소장기록물의 가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견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협조 관련 의견, 호남교회사 연구소 문서고 열람 등에 관한 질문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소장 기록물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특히 관리자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어려움 등 참고 문헌이나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 천주교 전주 교구는 한국 천주교의 태동과 전파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으로서, 전주, 익산, 완주 등을 포함한 크고 작은 지역에서 순교와 박해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기록물 뿐만 아니라, 순교의 유적, 성지터, 건축물, 인물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성지로서의 보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산물의 관점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와 근현대 정신 문화의 본질 측면에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천주교 성지는 총 111곳으로 서울·경기, 경북, 충남, 전북, 제주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천주교 성지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 및 기록물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 예로 가장 많은 성지를 보유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천주교 성지 재조명을 통한 성지 개발 사업과 제주도의 김대건 신부 표창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성지순례 관광 상품 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현되는 AtoM을 통한 아카이브 구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주교 성지라고 하는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개발 사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각 지역교구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적용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주시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 2016 ICA 총회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공기관 산업전’에 참여해 세계 기록 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전주 전통 한지에 원본 그대로 복원한 복본(復本) 600여권을 전시하였다. 전주시는 여러 매체에서 이러한 참여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전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소중한 전주기록자산으로 보전·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전주의 각종 인문학적 기록물을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을 융합한 ‘라키비움’ 형태와 디지털 플랫폼이 결합된 ‘전주 정신의 숲’ 조성, 전통 한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전라 감영에서 간행되었던 완판본 서적 70여권에 대한 복본화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 자치 단체의 지역 기록 문화 콘텐츠 발굴 사업과 맞물려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기록물 그 가치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문서고에는 약 960여건의 기록물이 분류 작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호남교회사 연구소 초대 소장 김진소 신부는 30여년 동안 전라 지역 곳곳을 돌며 천주교 역사 기록물 수집에 힘썼으며 현재 2대 소장인 이영춘 신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천주교 역사에도 의미가 있는 6가지 기록물을 소개받았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해당 기록물은 이순이루갈다의 옥증편지(서한문), 전라도 전교약기(도서), 첩례표(생활물품), 천주가사집(생활도서), 선교사편지(서한문), 세례대장(행정문서)으로 호남교회사 연구소 전체 소장 기록물의 대표적 유형들을 갖추고 있어 AtoM 적용에 적합하다.

천주교구 천주교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지역 문화 콘텐츠에 대한 마케팅

효과를 발휘하여 관광 및 연관 산업과 지역 이미지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지방 자치 단체의 문화 관광 산업의 정책 기조와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공간과 시간,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억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문화 요소를 디지털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의력과 IT기술을 더해 최신 트렌드에 맞는 여러 창작물의 소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만화, 게임, 에듀테인먼트, 음악, 영화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비단 천주교 신자들만의 역사적 순례 콘텐츠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 또는 외부 관광객들의 문화 상품 소비, 역사 문화 향유라는 측면에서 전주·전북지역 문화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기록물은 천주교 역사를 기억하는 종교 기록물, 지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 기록물, 관리 주체의 차원에서 볼 때 민간 기록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사업과 부합하는 지역문화콘텐츠라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한 기록화 작업은 종교·역사·민간·지역문화콘텐츠의 아카이브 구축 및 관련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호남교회사 연구소 문서고 소장 주요 기록물의 가치

제 목	의의 및 중요성
이순이 루갈다의 옥중편지	-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옥중편지로서, 1800년대 한글연구, 천주교회사/순교자 관련연구, 당시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연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기록물
전라도 전교약기	- 개항기 전라도 지역에서 30여년간 프랑스 선교사들의 복사로 활동한 박제원의 구술서로써, 당대 지역의 천주교 역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
침례표	- 한 해 동안의 교회의 주요 축일 등의 전례 시기를 월, 일로 구분해 기록한 표로써,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사 기록물
천주가사집	- 천주교 전교 또는 신앙고백을 위해 우리 고유의 형식으로 쓰여진 노래집으로써 서구 사상을 한국적 양식에 담아 개화기 또는 근대기로의 이행기에 있어 천주교의 역할 연구 자료
선교사 편지	- 1889년 전주에 부임한 프랑스 보두네 신부, 베르몽 신부 등의 서한문 모음, 주교에 대한 보고서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고, 프랑스 선교사들의 생활상·지역전교 실상을 알 수 있는 자료
세례대장	- 세례대장은 당대 천주교 신자들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고, 여러 지리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지리학·사회학적 측면에서 연구 가치가 뛰어남

〈표 2〉는 호남교회사 연구소 기록물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장 기록물 중 종교·역사·연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요 기록물을 소개받아 요약하여 작성한 것이다.

2. 관리현황 및 문제점

아카이브 구축 대상 기록물인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기록물은 현재 완주군 천호성지에 위치한 호남교회사 연구소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문서고 내부는 벽돌과 나무 선반으로 만들어진 책장에 작은 메모지로 기록물의 제목을 적어놓는 수준으로 모든 기록물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매우 열악한 물리적 환경에 놓여있다. 관리자는 초대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인 김진소 신부와 현재 소장인 이영춘 신부가 관리하고 있고 전주교구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7월 29일 진행된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인 이영춘 신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기록물의 전반적인 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기록물 관리는 대부분 호남교회사 연구소 초대 소장이 관리하고 있고, 2대 소장은 기록물 정리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어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인원은 2명이라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소장 기록물에는 고문서들이 많아 영인본을 만들고 번역본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데 책 한권에 수개월·수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록물의 보관은 별도의 보존 처리 없이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고 라벨 스티커를 붙여 어디에 어떤 기록물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정도였다.

소장 기록물의 현황은 부분적으로 분석되었으나 실질적인 물리적 보관에 있어 인력의 부족, 예산 부족, 전주교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한 기록물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문서고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 분배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해왔고, 전주교구 역시 소장 기록물이 전주교구의 관리 대상 기록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호남교회사 연구소 문서고의 기록관리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통한 검색 및 열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기록 관리 및 기록물 번역·연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록물의 안정적 관리 및 전시·견학을 위한 오프라인 기록관 건립이 필요하다.

현재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소장 기록물은 일부 기록물이 디지털화되어있고 기록물의 제목과 내용은 간략하게나마 파악되어 있는 상태이다.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인력과 예산의 확충은 오랜 시간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전주교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와 공감을 얻고 정책적 방향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데이터 관리는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으로 이미 디지털화되어있는 일부 기록물을 업로드하고 그렇지 않은 기록물도 데이터 입력을 통한 기록물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호남교회사 연구소 담당자는 예산과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기관에 필요한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AtoM이 민간기록물 관리에 특화되어 있고, 기록물 및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기 뿐만 아니라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하여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어 민간 기록 관리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였고 활용

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기록물의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AtoM을 활용하였고 다음 장에서 소장 기록물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고 분류 작업을 마치고 시스템에 필요한 요구 조건 및 고려 사항을 분석하여 실제 구현된 몇 가지 기능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3. 소장 기록물의 유형 및 특성

호남 교회사 연구소 문서고는 초대 소장인 김진소 신부가 40여 년간 직접 수집해온 초기 한국천주교회 관련 자료들이 있으며, 이는 초기 포교 활동 때 실제로 사용했던 교리서, 심신서, 기도서, 포교서, 천주가사 등 일반인들이 쉽게 구경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호남교회사 연구소는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소 다음으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의 분류와 관리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록물 열람, 검색, 전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훼손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AtoM을 활용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에 앞서 보관 기록물의 규모와 유형, 내용 등을 분석하고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기록물 분류 작업을 시행 하였다.

첫째, 소장 기록물의 시대별 분류를 통해 <표 3>과 같은 기록물 분류 작업을 시행하였다. 아카이브 구축 대상 기록물은 총 965건으로 시대적으로는 1545년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의 기록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많은 양이 1800년대 개화기, 천주교 박해 시대 및 1900년대 일제 강점기의 기록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 소장 기록물 시대별 분류

제작 년대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미상
건수	2건	3건	28건	186건	504건	242건

둘째, 호남교회사 연구소 문서고 소장 기록물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크게 문서류, 도서류, 성물류로 구분할 수 있다. 소장 기록물 대부분은 종이 기록이며, 조선시대부터 근대를 거치며 많은 수의 고문서를 보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서한문, 메모, 스크랩, 첨부표(미사일정표) 등이 있으며, 당시 천주교 신자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고 행정·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영수증, 고지서, 계약서, 이력서 등도 포함하고 있다.

〈표 4〉 소장 기록물 유형별 분류

구분	주요 내용
문서류	- 서한문(신부, 주교 등), 혼인허가서, 첩례표, 축일표, 토지측량표, 각종 계약서, 고지서, 유언서, 이력서 등 당대 생활상과 사회상을 알 수 있는 문서 포함
도서류	- 성경, 교리서, 전교서, 찬송가사집, 역사서, 잡지, 교과서 등 천주교 지역사 및 사회·지리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가능한 도서 포함
성물류	- 십자가, 종, 목주 등
시청각류	- 신도들의 사진, 성인들의 그림 등 당시 생활 속에서 지역 신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 및 그림 자료 포함

호남교회사 연구소 문서고 소장 기록물 중 도서류에는 시대별 고서 및 성경, 교리서, 전교서, 예식서, 간행물, 잡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진소 신부가 전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집 또는 기증받은 성경, 기도서, 성인전, 교리서, 예식서, 천주가사집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문서고에 별도의 보존 관리 시스템 없이 보관되어 있다. 그밖에도 참회록, 교과서, 잡지 등의 당대 지역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록물로 지역민의 일상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장 기록물 중 성물류는 그 수는 적지만 당대 천주교 신자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십자가(동, 구리, 나무 소재), 종, 목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시청각류로서 신도들의 사진, 성인들의 그림 등이 보관되어 있다. <표 4>에서는 이러한 기록물에 대한 유형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기록관리 시스템의 기술 계층 구성이 우선 이루어져 한다.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기록물은 일반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과 달리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이 없고 기록물 생산 및 수집의 출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용도별·내용별 분류를 통해 기술 계층을 구성하는 것이 기록물 관리 및 서비스를 함께 있어 효율적이다.

효율적 기술계층 구성을 위해 소장 기록물의 용도별 대분류가 이루어졌고 크게 성서/교리, 교회업무/행정, 성가/가사, 기도/심신서, 일기/서한문, 성물, 기타 생활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toM을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 계층을 구성하고 기술 계층의 컬렉션 부분이 용도별 대분류로서 기술되었다. 대분류내에서 시리즈, 파일, 아이템 순서로 기술 계층 구성이 이루어지고 시스템 내에서 기술 계층에 따라 마이그레이션이 활용되었다.

용도별 대분류는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기록물이 큰 틀에서는 교회사 기록물이지만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록물뿐만 아니라 역사, 행정, 생활 등 다양한 용도의 기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기록물의 분석을 통해 정리 체계를 구성하고 이용상의 편의를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된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의 콘텐츠 분류 체계를 참조하여 대분류의

제목을 구성하였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콘텐츠 분류 체계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 목차와 디렉토리 분류로 나누어진다. 콘텐츠 목차는 삶의 터전(지리), 삶의 내력(역사), 삶의 자취(문화유산), 삶의 주체(성씨와 인물), 삶의 틀(정치, 경제, 사회), 삶의 내용1(종교), 삶의 내용2(문화, 교육), 삶의 방식(생활, 민속), 삶의 이야기로 총 9개의 대주제로 분류되며, 28개의 중주제, 100여개가 넘는 하위주제로 분류되는 계층 분류 체계이다(정경란 2013).

<표 5>는 용도별 대분류, 중분류에 따른 유물명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서 관리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다. 대분류로 나누어진 성서/교리, 성가/가사집, 기도서/심신서는 향토문화전자대전의 7번째 카테고리인 삶의 내용(종교와 문화)과 매칭을 이루었고, 역사서 부분은 2번째 카테고리인 삶의 내력(지방의 역사), 교회업무/행정은 삶의 틀1(정치와 행정), 일기/서한문, 성물, 생활 자료는 삶의 방식(생활과 민속)과 매칭을 이루어 대분류를 구성

<표 5> 호남교회사 연구소 문서고 기록물의 용도별 분류 및 유물명

대분류	중분류	기록물명
성서/교리	성경	-성경직해광익, 신약전서(관주) 등
	교리서	-성교절요, 예수진교사패, 진교절요, 소원신중, 성교요리문답, 천주실의, 어린이의 성체조배, 주교요지, 성세주요, 노인문답 등
	성경해설서	-성교감략, 성경직해 등
	미사경본	-라틴어미사경본 등
성가/가사집	천주가사	-천주가사집, 사주구령가, 금침가, 사향가 등
	동학가사	-동학가사집 등
기도서/심신서	기도서	-천주성교공과, 목상신공, 성요셉 성월 기도문 등
	심신서	-선생복종정로, 신명초행, 죄죄정규, 성모성월, 천당직로, 회회직지, 일과절요, 사후목상, 사사성경, 칠극, 은사약설, 목상요해 등
역사서	성인전	-주년첨례광익, 성분도언행록 등
	전교사	-전라도전교약기 등
	순교사	-기해일기, 병인복자전기, 치명일기, 정야고버 치명일기 등
	역사서	-화산천주교회약사, 조선천주교회약사, 조선정감, 거제도 천주교회사 등
교회업무/행정	예식서	-천주성교예규, 미사례의, 미사규식 등
	교회법	-회장직분 등
	성사자료	-건진성사표, 혼배허가서, 혼인성사증명서 등
	지침서	-공소회장의 문부, 회장의 본분, 노인문답 등
	통계	-교구연혁 등
	첨례표	-천주강생 첨례표, 천주공교회 첨례표, 년도별 매일 첨례표 등
일기/서한문	공문서	-사임수리서, 6.25전사자 보고서 등
	일기	-서정수신부일지 등
성물	서한	-환난을 위로하는말, 임복만신부의 편지, 베르몽신부자료, 모두네신부편지 누갈다초남 이일기남매 등
	성물	-십자고상, 최요셉순교자목주, 이누갈다십자고상
생활자료	시/산문집	-만천유고, 망향(이태규신부시집)
	잡지	-보감, 경향잡지, 가톨릭소년(청년) 등
	메모/스크랩	-베르몽신부자료,호적사본
	기타	-신자증명서, 유언서, 소자료영수증, 김구정이력서, 윤택중 명함, 납세고지서 등

하였다. 하위분류인 중분류와 세부 기록물은 호남교회사 연구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기록물의 내용을 파악하고 용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현재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기록물은 별도의 분류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로 기록물의 제목과 내용 등 단편적인 부분만 파악되어 건별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목과 내용, 제작년도, 담당 신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형별·시대별·용도별 분류가 이루어 졌으며, 추후 종교·역사·지역사회 담당 전문가와 함께 주제별, 사건별, 규모/매체별, 용도별 분류가 더욱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장 기록물의 규모와 매체, 제작자 등의 분류가 이루어지고, 문서/도서류의 경우 등사본, 자필본, 필사본, 활판본, 영인본 등의 제본 및 제작 형태 또는 한글, 한문, 프랑스어, 국한문 혼용 등 사용 언어 등으로 분류 작업이 이루어져 관리상의 편의를 높여야 할 것이다.

4. AtoM 적용 구현

앞선 선행 연구, 국내·외 사례조사, 호남교회사 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한 대상 기록물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AtoM을 적용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각 지역 교회 기록물의 관리현황·문제점을 제시하고 기록물의 아카이브 구축, 지역문화콘텐츠로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제안에 그쳤다면 실제로 기록물 소장 기관에서 아카이브를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카이브를 지역문화콘텐츠로서 지역 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지역민 및 외부 방문객이 아카이브를 통해 지역사를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등 그 목적과 대상, 활용 주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아카이브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둘째,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시된 소장 기록물의 가장 큰 문제점인 예산과 인력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이를 소장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민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 및 활용 주체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물리적 환경 구성 및 기록 관리적 부분에서 이루어져야할 고려사항을 분석하였고 실제 구현을 수행하였다.

가. 고려사항 분석 및 기술계층 구성

AtoM을 기반으로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소장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 및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이는 시스템 개발과 관리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스템 개발 측면에서는 첫째, AtoM을 활용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toM을 운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구성되어야 한다. AtoM이라는 소프트웨어와 서버 및 저장장치를 연결해야 하며, 기록물 관리 담당자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여 소장 기록물 담당자와 서버주소를 공유하여 구현 작업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부분들을 상호협업을 통하여 수정 및 작업이 이루어졌다.

둘째, 소장 기록물의 DB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기록물은 현재의 PDF파일에 각 기록물의 제목, 형태, 언어, 내용, 생산시기가 기록되어 있다. AtoM의 활용을 위해 각각의 기록물 별로 기술목록에 맞추어 입력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파일의 형식도 하나로 통일하여 시스템 활용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소장 기록물이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외부 바이러스나 랜섬웨어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안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실제 AtoM을 활용한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에서도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례가 있고, 최근에 이러한 악성 코드 및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 보안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및 백업, 복구 등에 대한 정확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작업외에 위에서 언급된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기록물의 정확한 분류와 기술 계층이 구성되어야 한다. 소장기록물이 종교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생활·지리·언어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호남교회사 연구소 담당자 혼자 종교적 역사적 가치만을 가지고 분류한다면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분류 작업을 마치고 분류를 기반으로 관리자의 편의와 검색 및 열람을 감안하여 기술 계층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 기록물 관리를 위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소장기록물 대부분이 고문서로써 한글로 되어있는 기록물뿐만 아니라 한자, 국한문 혼용, 프랑스어, 영어로 되어있는 기록물도 다수 존재한다. 1차적으로 이를 번역할 인력이 필요하며 이는 전문가들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를 디지털화하는 등의 부수적 업무를 수행할 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기록물 관리, 열람, 전시 등 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셋째, 분류된 기록물의 데이터 정리 및 전체 기록물의 디지털 작업이 요구된다. 완벽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록물 열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기록물을 일부 알려진 기록물 한 두건만이 디지털화 되어 있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 구현된 작업 수행 역시 데이터 관리 위주로 진행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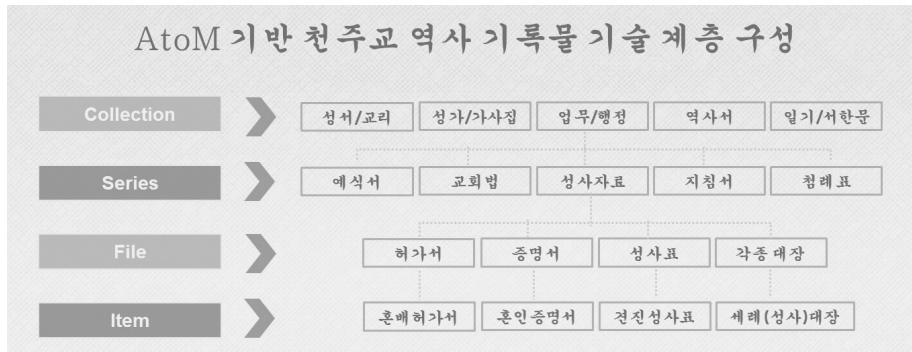
넷째, 지속적인 수집 정책 수립을 통해 과거의 호남교회사 연구뿐만 아니라 현재의 역사를 수집해야 한다. 이는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궁극적인 목표로 호남교회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주교구에서 행정적으로 발생하는 기록물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교인들의 기록물 등 수집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소장 기관의 관리적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콘텐츠 활용을 통한 지역개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도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고려사항을 분석하고 AtoM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장기록물의 컬렉션을 분석하고 기술계층을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AtoM이 제공하는 기록 계층은 기본적으로 컬렉션(Collection), 풍(Fonds), 서브풍(Subfonds), 시리즈(Series), 서브시리즈(Subseries), 첼(File), 파트(Part), 건(Item)으로 총 8개로 구성되어 있다.

AtoM은 인수된 기록물에 대한 생산 및 보존 규칙을 명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해당 기록물은 기록물 이관 및 보존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단순하게 아이тем 단위로만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3장의 용도별 분류에 따라 성서/교리, 성가/가사집, 기도서/심신서, 역사서, 교회업무/행정, 일기/서한문, 성물, 생활자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컬렉션과 그에 따른 중분류를 시리즈로 구성하여 큰 범위의 계층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첼과 건 단위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소장기록물을 비롯한 앞으로 수집될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기술 계층을 구성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AtoM에 적용을 위한 사례로써 호남교회사 연구소 기록관리 담당자로부터 추천 받은 6가지 기록물은 각각 다음과 같이 기술 계층 분류가 이루어졌다. 앞서 분류한 용도별 대분류에 따라 이순이루갈다의 옥중편지(일기/서한문 컬렉션), 전라도전교약기(역사서), 침례포(교회업무/행정), 천주가사집(성가/가사집), 선교사편지(일기/서한문), 세례대장(교회업무/행정) 각각의 컬렉션을 구성하였고 하위 계층으로 이순이루갈다의 옥중편지(서한문), 전라도전교약기(전교사), 침례포(침례포), 천주가사집(천주가사), 선교사편지(서한문), 세례대장(성사자료)으로 시리즈 구성을 할 수 있었다.

<그림 1>은 교회업무/행정 컬렉션의 하위 기술 계층을 보여준다. 용도별 중분류로 분류된 예식서, 교회법, 성사자료, 지침서, 침례포 등이 시리즈로 구성되고, 그 중 성사자료의 파일(첼)로 허가서, 증명서, 성사표, 각종 대장 등이 구성되었다. 각 파일별 아이тем으로 혼례허가서, 혼인증명서, 견진성사표, 세례(성사)대장이 최하위 계층인 아이тем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 AtoM 기반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기록물 기술 계층 구성

호남 교회사 연구소 소장 기록물의 특성 상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아닌 기록물대부분이 다양한 민간으로부터 기증되거나 수집된 기록물이고 기관별 또는 생산자별 기술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용도별 분류를 통해 검색,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컬렉션 분석 및 기술 계층 구성과 더불어 기록물 등록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등록 기록물의 매체 유형 분석이다. 디지털 형태의 기록은 시스템 내에서 원본 열람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할 수 있으며 디지털이 아닌 기록관 또는 문서고에 기록물이 소장되어 있다면 소장 목록만 제공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기록물 중 천주교 역사 또는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기록물 중 가장 가치 있는 기록물 6개를 선별하여 기록물 등록 작업을 시행하였다.

나. AtoM 구현 적용 사례

AtoM은 기록물 기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열람 및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각 등록 기록물의 기술 작업이 시스템이 요구하는 기술 요건과 적절하게 매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AtoM의 기록물 기술을 위한 기본 템플릿은 ISAD(G)(국제 보존 기록 기술 규칙)의 템플릿이다. 이밖에 RAD, DACS, 더블린코어, MODS 중 하나로 기본 템플릿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기록물 등록 및 보존

본 연구에서는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기록물 중 가치있는 기록물 6가지를 선택하여 ISAD(G) 표준에 맞추어 각 기록물의 매핑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에 맞게 기록물 기술 템플릿에 적용하였다. ISAD(G) 표준은 다계층 기술 규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술 단위의 매체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보존 기록에 적용되는 원칙과 요소를 제안하고 있어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기록물들을 적절하게 기술 하고 있고 AtoM의 기본 템플릿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기록물 기술이 가능하므로 ISAD(G) 표준을 기본 템플릿으로 사용하였다.

식별 영역 >>	
참조코드 제목 일제(시기) 기술 계층 규모 및 매체	별도의 식별자 없음 이순이 누알다의 옥중편지(필사본) • 1840년~1868년 사이 추정 (생성) 건 도서1권
맥락 영역 >>	
생산자 이름 기록보존소 기록물 이력 수집/이관의 직접적 출처	순교자 김종훈 루카(1819~1868) 호남교회사 연구소 • 1868년 순교한 김종훈이 필사하여 소장하다가 사후 손자 김병욱이 보관해 오다 1965년 김구정 선생에게 기증되었고, 김구정 선생이 1980년 5월 1일 사망하면서 현재의 김진소 신부에게 유산기증 호남교회사 연구소 미영훈 신부
내용과 구조 영역 >>	
범위와 내용 평가/폐기 보존기간 책정 정리 시스템	• 이경도(가톨릭)가 어머니에게 보낸편지 이순이(누알다)가 어머니에게 보낸편지 이순이(누알다)가 두 언니에게 보낸편지 이경연(바오로)가 쓴 옥중심문기 이경연(바오로)가 어머니와 가족에게 보낸편지 이경연(바오로)가 아내에게 보낸편지 이경연(바오로)가 명도회 회원들에게 보낸편지 • 이경도는 큰오빠, 이경연은 막내동생 • 총 46페이지의 한글로 구성 연구보존 김종훈 루카의 필사본 원본 스캔 후 pdf파일로 변환 저장 보관
열람 및 이용 조건 영역 >>	
접근제어조건 복사조건 기록물의 언어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호남교회사 연구소 보안 중요문서, 일반인 열람 금지 복제 금지 • 기타 언어 한자로 된 책1권 구성 pdf파일 뷰어 필요
연관자료 영역 >>	
원본 존재와 소장위치	원본 존재 호남교회사 연구소 문서고
주기사항 >>	
주기(노트)	이순이 누알다의 옥중편지는 한국 천주교 순교자 최초의 옥중편지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아직 최선의 해석 및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큰 기록물로서 각별한 보관이 필요
접근점 >>	
이름 접근점	• 순교자 김종훈 루카(1819~1868) (생산자)
기술통제영역 >>	
전자레코드 현지위	초안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편집 삭제 새 항목 추가 복사하기 이동 줄 더 > </div>	

<그림 2> 이순이누알다의 옥중편지 필사본 기술화면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의 추천 기록물은 이순이누알다의 옥중편지 필사본, 전라도 전교약기, 침례표, 세례대장, 천주가사집, 선교사 보두네 신부의 편지 등이다. <그림 2>는 이순이누알다의 옥중편지 필사본을 ISAD(G)의 7가지 기술 영역과 26개 기술 요소에 맞추어 매핑 작업을 실시한 후 AtoM에 적용한 것이다.

ISAD(G)를 통한 정리·기술의 결과가 관리와 검색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역사·민간 기록물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순이누알다의 옥중편지(필사본)’의 경우 다른 기록물들과의 관계나 계층 부분을 기술하는데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관련자료·기술통제 영역 역시 기록물의 희소성 및 문서 보관 기관의 보존 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에서 기술의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② 데이터 관리

호남교회사 문서고의 소장 기록물 데이터는 총 900여 건으로 전체 데이터를 AtoM 시스템으로 이동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엑셀 파일로 목록을 작성한 후에 CSV 형태로 저장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AtoM시스템으로 불러오기 가능한 CSV파일은 UTF-8 형태의 인코딩, 유닉스/리눅스 스타일의 라인 엔딩 기호 사용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안대진, 김익한 2015). 데이터가 마련된 후에 AtoM의 CSV템플릿의 데이터 구조와 기관의 컬럼명을 매핑해야 한다. AtoM은 기본적으로 ISAD(G)템플릿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관의 소장 목록과 정확히 매핑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초 CSV파일을 구성할 때 AtoM의 컬럼과 매핑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데이터를 추출 후 들여오기(Import)작업이 수월해진다.

기록물의 등록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전거레코드 구성이다. 전거레코드는 목록에서 접근점으로 선정된 인명, 단체명, 통일 서명, 주제명, 총서명, 지명 등의 표준화된 표목 형태를 다른 형태로 연결하여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레코드를 의미한다. 기록 관리를 위한 전거레코드는 보통 개인, 단체, 가문 등 기록 생산자를 대상으로 구축되나,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기록물의 경우 생산자와 주제를 중점적으로 전거레코드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AtoM에서는 메인 메뉴에서 전거레코드 생성, 수정, 삭제 및 전거레코드와 기록기술을 연결, 링크하는 기능, 두 개의 전거레코드에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AtoM을 활용한 호남교회사 연구소 기록물 관리 시스템은 기록물 기술과 더불어 기록물의 진본을 디지털 객체로 업로드하여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디지털 객체는 업로드되고 전시되어질 수 있는 파일인체 그 종류로는 스캔, 이미지, 전자사진, 소리, 동영상 등이 있고 전자화 문서 역시 디지털 객체에 포함될 수 있다. 이용자들에게 기록물 기술을 위해 단일 디지털 객체를 연결하거나, 다수의 디지털 객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모든 디지털 객체는 파일이나 아이템 단계로 아카이브 기술을 설정해야 한다.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기록물은 100% 영구보존 기록물로서 시스템상에서 별도의 기록물 처분에 관한 기능의 사용 빈도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록물의 처분이 필요하다면 기록물 처분 기능을 이용하여 처분에 대한 기술과 규모, 처분 근거를 작성하여 처분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다.

③ 통합기록관리

AtoM을 활용한 호남교회사 연구소 기록물 관리 시스템은 첫 번째로 기증 및 수집에 따른 입수 정보를 기록하고, 두 번째로 기록물 기술 정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기능을 제공한다. 더불어 기록물 소장 기관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지도록 ISDIAH기반의 소장 기

관에 대한 기술을 할 수 있다.

식별·연락·기술·접근·서비스·제어영역과 접근점 항목으로 나뉘어 편집이 가능하며, 소장 기관의 명칭, 연락처, 기관의 이력에 관한 정보, 조직/기관구조, 건물, 보존기록 및 기타 소장물, 개관 시간, 조건/요구사항, 복제/열람 서비스 등의 기술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소장기관 기술과 더불어 기능에 관한 편집 기능도 가능하다. ISDF규칙에 의거하여 크게 식별 영역, 맥락 영역, 관계 영역, 제어 영역으로 나누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식별 영역에서 형태, 이름 형식, 분류 등의 추가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맥락 영역에서 기능이 시작된 날과 끝난 날이 포함된 시기, 기능의 목적, 기능과 관련된 조직사, 개인/가족 이력, 기능의 시작·변화·종료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률, 명령 계약 등을 추가할 수 있다. 관계 영역에서 관련 기능, 전거레코드, 원전(source)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제어 영역에서 기술 식별자, 전거레코드 식별자, 규칙 및 협약, 언어, 규약, 참고자료, 생산과 관리와 관련된 주기 등을 추가할 수 있다.

V. 서비스 제공방안

1. 온라인 기반 서비스 제공방안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서비스 제공은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하여 보존에 의해 유지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정보 및 관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제공은 다양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를 어떤 방법과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측면, 지방자치단체 및 천주교 전주교구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측면, 전시 및 교육 등 정보 이용자에게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활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면 AtoM을 활용한 호남교회사 연구소 디지털 아카이브는 시스템 관리, 시스템 현황, 기록물 현황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관리자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호남교회사 연구소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도 되어 있지 않아 원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기록 관리 시스템인 AtoM을 활용하여 기록 관리를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호남교회사 연구소를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리눅스 환경을 이용한다면 Omeka, Archivematica와 연계하여 웹 전시 및 장기 보존을 가능케 할 수도 있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형별로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항목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분류번호 부여, 검색용 색인 확보, 메타

데이터 입력 등의 작업을 통해 소장 기록물의 관리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호남교회사 연구소 홈페이지는 크게 주제별, 용도별 분류, 내용 색인, 원본 열람, 기관 소개 등의 메뉴로 구성한다. 주제별·용도별 분류에서는 소장 기록물 중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대표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나머지 기록물을 용도별로 정렬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내용 색인의 경우 시대별·용도별·사건별·매체별 분류로 나누어 이용자가 손쉽게 기록물을 찾을 수 있도록 구분하고, 기록물의 자체 필터링을 통해 원본 열람 서비스가 가능한 기록물을 선택하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웹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PDF뷰어 또는 HWP 뷰어 기능이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호남교회사 연구소 기관의 소개 또한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성지 순례를 위해 전주교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주변의 성지터를 소개하거나, 전주교구 천주교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메뉴를 추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의 서비스 제공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천주교 전주교구는 95개의 성당과 5개의 피정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천호 피정의 집에서는 완주군 천호 성지의 성지 순례를 안내하고 성지 순례에 대한 접수 및 문의 업무를 진행한다.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아카이브 구축이 이루어지면 전주교구 홈페이지 및 천호 피정의 집 순례 코스에 호남교회사 연구소 아카이브 방문 및 주요 기록물 열람 신청을 받아 소장 기록물의 의미를 알고 되새겨 성지 순례의 의미를 배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주교구뿐만 아니라 전주시 및 전라북도 역시 문화관광산업정책에 있어 한국 천주교 신앙의 발상지로서의 전북·전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간 천만 명의 관광객을 목표로 하는 전주시의 경우 한옥마을 관광 코스에 전동성당 및 주변 성지를 연계하는 천주교 성지 순례 코스를 추가하고, 호남교회사 연구소 아카이브 홍보를 통한 추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2. 오프라인 기반 서비스 제공방안

AtoM을 통한 기록 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직접 문서고를 찾아오는 오프라인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도 필요하다. 현재 전주교구 천주교 역사 기록물 보관 장소인 호남교회사 연구소 문서고는 온도, 습도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기록물의 대부분이 100년 이상 된 역사 기록물임을 감안할 때 현재 문서고의 리모델링 또는 새로운 기록관 건립은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호남교회사 연구소 및 전주교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특정 종교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한계를 이유로 번번이 거절을 당해왔지만 이를 종교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문화 관광 산업 육성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호남교회사 연구소 문서고의 오프라인 기록관 건립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호남교회사 연구소 문서고는 완주군 천호 성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전북 지역

에 성지 순례를 오는 천주교 신자들이 천호 성지의 세계 성물 박물관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기록관에 들러 한국 천주교 전주교구의 뜻깊은 역사 기록물을 둘러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소장 기록물 중 가치있는 대표 기록물의 상시 전시와 더불어 여러 기획 전시들을 이어 나간다면 성지를 찾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2007년 호남교회사 연구소는 지역 대학의 박물관을 활용하여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자료 특별전 ‘하늘부름, 믿음과 삶의 기록들’이라는 전시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총 3실로 나누어 진행된 전시는 제1실-호남교회사연구소의 소개 및 활동, 제2실-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자료 전시, 제3실-전주교구와 초기 호남천주교의 발전과정 등을 소개하며 방문객들에게 전주교구의 역사기록물과 호남천주교의 역사를 알기 쉽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기록물들은 단순히 천주교 역사를 알 수 있는 종교적 자료뿐만 아니라 지역사, 어문학, 생활사, 지리학 연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당대 지역사를 알 수 있도록 시대별 분류를 통해 지역사 연구자들이 용이하게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당시 한글 및 한문 연구가 가능하도록 국·한문, 프랑스어, 영어 등 언어별 범주 제공을 통해 어문학 연구자들을 위한 디렉토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기타 생활사 및 지리학 연구 등 별도의 연구자 범주를 생성하여 기록물의 지속적인 연구 및 재생산을 통해 기록물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해야 할 것이다.

VI. 기대효과 및 결론

호남교회사 연구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지역 문화 콘텐츠로써 문화 관광 산업 효과 상승으로 인한 지역 부흥 효과,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기록관리 시스템의 확립, 천주교 신앙의 근원지로서 종교적 가치 상승 등 지역적·기록관리적·종교적 기대 효과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지역 문화 관광 콘텐츠로써의 지역 부흥 효과를 살펴보면 최근 전북 지역 특히 전주 지역은 전통 역사 문화 관광지 1순위로 꼽힐 만큼 문화 관광지로서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2015년 행정자치부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연간 580만 명 이상이 전주 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며 문화 관광 코스의 하나로 천주교 성지인 치명자산 성지도 포함되어 있다. 치명자산 성지를 찾는 관광객 중 상당수는 천주교 신자로써 치명자산 성지와 더불어 숲정이 성지, 전동 성당, 천호 성지 등 주변 성지들을 동시에 방문하기도 한다. 호남교회사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천호 성지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참배객들이 찾는 중요한 성지로서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장 기록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주변 성지들과 더불어 전북 지역의 주요 관광 문화 콘텐츠로써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주·전북 지역의 역사 문화, 도시 문화 육성 산업과 맞물려 아카이브의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성장 동력이자 사회·문화적 기반으로 위상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모바일, 게임, 에듀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문화 콘텐츠로서 지역 문화 산업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록 관리적 측면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기록 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이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록물의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민간 기록 관리 분야의 전문성 향상, 특히 종교·역사 기록물의 기록 관리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문서고에 쌓여있던 소중한 기록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천주교 순례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록 관리 서비스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해당 기록물의 역사적·종교적·교육적·연구적 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지역 보존 기록의 가치를 영구히 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것이며, 이는 기록학적 측면에서 지역 종교 기록물·민간 기록물·역사 기록물의 영구 보존의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천주교 신앙의 근원지로서 지역의 종교적 가치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성지 순례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의 탄생과 관련되거나 성인들이 생활했던 역사의 현장을 찾아 참배하는 과정을 말한다. 성지 순례 관광은 중세 시대에 있어서 문예 부흥과 대중 관광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적인 관광 형태였다. 성지 순례 관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역사와 유서가 깊은 성지를 믿음으로 방문하는 문화 관광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김중은 2006).

한국 천주교 전주교구는 이미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한국 천주교 순교 및 박해의 성지로 알고 있고 실제로 많은 숫자의 신자들이 전주·완주·익산 일대의 성지터를 찾아 순례를 이어오고 있다. 전주교구 천주교 역사 기록물의 아카이빙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단순한 관광을 넘어 한국 천주교가 지녀온 순교와 박해의 역사를 확인하고, 믿음과 치유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보존 환경, 인력 부족, 소장물 분류 미비 등의 문제를 안고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종교적 맥락을 고려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구체적인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므로 향후 지역사 전문가 및 천주교 역사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전체 기록물이 아직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록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관리를 우선 진행한 후 점진적으로 모든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원본에 대한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이후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기록물이 지역 주민과 지방 자치 단체, 천주교 전주교구의 대표 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권순명, 이승휘. 2009.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1: 41-84.
- 김진소. 2004. 호남지역 신앙공동체의 특성: 박해시대 호남천주교회를 중심으로. 『신학전망』, 147: 2-36.
- 손동유. 2011. 지방의 역사기록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8: 155-180.
- 송정숙. 2015. 지역 기록을 활용한 로컬리티의 형성과 재구성: 일본 지바현 다테야마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2): 203-225.
- 안대진, 김익한. 2015. AtoM 시스템의 구축과 커스터마이징 방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5: 5-50.
- 여진원, 장우권. 2013. 도시아카이브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315-335.
- 육혜인, 김용, 장준갑. 2015. AtoM을 활용한 민간기록물 관리 방안: ‘기록사랑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2): 79-105.
- 이병원. 2009. 성지순례관광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7(2): 1-20.
- 장윤금. 2013.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 연구(1800-1910). 『정보관리학회지』, 30(4): 265-281.
- 정경란. 2013. 지역문화의 표준분류체계 연구: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지』, 11(3): 48-55.
- 한현규. 2005. 지역문화콘텐츠 시대의 도래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경기논단』, 7(2): 4-7.
-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2016. 법률 제14127호.
- 이영춘. 2016. 8. 27, 완주, [인터뷰].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Dae-jin and Ik-han Kim. 2015. “A Study on Constructing and Customizing an AtoM Syste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45: 5-50.
- Cultural Industry Promotion Basic Act. 2016. No.14127.
- Gwon, Sun-myeong and Seung-Hwi Lee. 2009. “A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y for Archiving Local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1: 41-84.

- Han, Hyun-kyu. 2005. "The Advent of cultural contents area and local government tasks." *A Forum Gyeonggi-Korea*, 7(2): 4-7.
- Jang, Yun-kum. 2013. "The Needs of Digital Archive Development for the Records of Early Foreign Missionaries in Korea (1800-191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265-281.
- Jeong, Kyoung-Ran. 2013. "A Study on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of Local Culture - Focused on The Encyclopedia of Korean Local." *The Korea Contents Society*, 11(3): 48-55.
- Kim, Jinso. 2004. "The nature of the faith community in the Honam region-Honam Catholic Church agencies around the time of presecution." *Journal of Theological outlook*, 147: 2-36.
- Lee, Byung-won. 2009. "A Study on the pilgrimage tourism." *Korean Association of Logos Management*, 7(2): 1-20.
- Lee, Yeong-chun. 2016, August 27, Wanju, [Interview].
- Son, Dong-yu. 2011. "Study on how to vitalize the historical record management of the provinc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8: 155-180.
- Song, Jung-suk. 2015. "Making and Rebuilding of Localities by Using Local Documents - In the Case of Tateyama City, Chiba Prefecture(千葉県, Chiba-ken) Japan." *Kore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2): 203-225.
- Yuk, Hae-in, Yong Kim, and Jun-gab Jang. 2015. "A Study on the Methods to Manage Private Records Utilizing AtOM (Access to Memory) : Focused on Archive Villag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2): 79-105.
- Yeo, Jin-won and Woo-kwon Jang. 2013. "A Study on the Urban Archives of Building Direction."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315-335.